은이의 열여섯번째 생일날 지살한 아버지!!
슬픔속에 한난 무효!
근-두근 솔락하는 남자!
학생에서 결혼식 사물 고
네가 웃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원하는건 다 줄게-
우리사랑 방해하면 다 죽었어!

(주)삼양출판사 꽃님

값3,800원

비밀
SECRET
5 한유랑

비밀
SECRET
5 한유랑

비밀
SECRET

5: 한유랑

내가 돈을 바랬다고?
내가 바란 건 단 하나였어. 수지와의 결혼!
팍팍
당신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
미친놈!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수지도 허락했다고…
당장 꺼져.
모두 날 속인 거짓말이었군
난. 수지를 위해 뺑소니에 음주운전까지 뒤집어쓰고 복역했는데
면회 한번 안 와도 이해했고.
출감한 후에야 신문을 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게 감사할 거라 믿었는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이용이었어

속았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 두고봐
피식
아... 이놈이...
승준 선생님! 아기는 무사히 받았지만 산모는 임신중독증이 너무 심했어요
...구할 수 없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희선을 더했고— 의사도 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 소란이죠?
가엾은 아이군. 누군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데, 넌 태어나는 동시에 엄마를 잃다니...
아구구구.. 과두긴 저놈이..
어머! 괜찮으세요?
지료해 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피식
갑자기 뭔 정전이야?

전원이 차단됐었니봐요
그런데— 아까 노숙자를 데려왔던 남자는 어딜 갔지?
아기를 데려와요
없는데요!
잘 찾아봐요
이…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어린 일이…
쌍둥이 아기 한 명이 사라졌어?
그놈 때문에 절렁해서…우리 손주와 손녀도 못 봤네
불길해… 바로 집으로 가야겠어

선생님! 택시기사였던 그 남자 말예요 아가를 안고 차 타고 달아나는 걸 본 사람이 있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인아 죽었는데 몰래 이기만 챙겨 달아나다니..
뻐 집니..
뉴스 멘..
..갑자기 정정된 이유도 수상했어요
이제 보니 병원비 안 내려고 가짜부부인 척 안 게 분명해요
당장 쫓아가서 잡아와요.
에? 차 타고 떠났는데 어떻게—
빨리! 못 잡아오면 큰일납니다. 어서...

쌩!
그 작자기 차라고 아기를 바꿔간 게 분명해—
..아냐지! 전 방금 아이를 낳아서 걸을 힘도 없어요 퇴원하자뇨..?
이 병원에 곽두건이 니티났으니 서둘러서 집으로 가자
그. 그 사람이 돼요?
지금은 택시기사 노릇을 하는 모양이던데 왠지 찜찜하다
산후조리는 집에서 받는 게 좋아
네 시댁 식구와 마주쳐봐라, 무슨 말을 할지 곰책하구나
곽두건? 그 택시기사 이름 ?

아.. 의사 선생! 우리 아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왜?
그 몸으론 무립니다
우린 퇴원 할래요
산모가 찬바람 쐬면 나중에 뼈가 사립니다
걱정마시오 몸관라 잘할 테니...
빨리 우리 아기나 데려오시게
저긴 !! 성질 급하긴

아기가 사라진 지금 퇴원을 하겠다고 저 난리니..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실수하면 이 병원도 끝이야
아기가 바뀐는 실수 말고 있겠어?
내 인생 여기서 망친다고 후회는 없다
여차피 소매치기범에 을 수 없었던 내가 의사까지 됐으니 출세한 거지.
하지만 아기가 사라진 지금 의사인 내 책임으로만 끝나진 않아 날 믿고 여기까지 키워준 그분에게도 피해가 간다

아가를 되찾아올
동안만이라도
이 병원에 있게
해야 한다
불행 중 다행인지
이러성이고
아기 얼굴은
금방금방
비뀌니까
. 노 숙 자 .

지금만
공주가 되거라

.....

찾을 수 있어
찾을 수 있다
그곳에 곽두견이란
운전기사 있습니까?
곽두견!
곽두견 어느
택시였더라.

아니..
그 의사
선생은 어딜
간 거야?
...아기를 데려
오라고 했더니...

이봐요,
간호사!

어머! 아직도
못 보셨어요?
기다리세요.
우리
아기들은
언제 보여
줄 거요?
여기
있습니다.

이이아하!
고놈들 아주
잘생겼네
아들과 딸을
동시에 낳다니...
내 딸은
운도 좋지
그 사람 달아났어요
우리 돌밖에 모르고—
노숙자가 여기서 아기 낳다가
죽은 건 비밀로 해요 공연히
골치 아파지니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장례나 치러주고
말이요
퇴원을
했다니?
아기가
바뀐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분들은?
내 허락도
없이...
이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고집이
워낙 세셔서..
말릴 수가
없어아죠
내 부인이
여기서 아기를
낳았을 텐데.
이
이 사람은—
...아..그게..
퇴원하셨습니다
예? 오늘
아기 낳은 사람이
퇴원을—
아…사위!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왔는데
병원으로
간 거가?
부탁이 있습니다
아직 시모님도.
아기도 몸이
안 좋은 상태니
절 주치의로
삼아주십시오

저애겐 처음으로
아기를 받은 분과의
인연을 이렇게
섭섭하게 끝내고
싶지가 않군요
--그렇게
하시도록 해라 원!
아기를 낳자마자
도망치듯 무슨
실례인지--
곽두견이란
사람을 꼭
찾아주십시오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사설탐정을--고용해
그 사람을 계속 찾았지만
외국으로 밀항을한거
같다는 보고로 끝났다.
아주 중요한 걸
훔쳐갔습니다
-에! 귀금속을
도난당한 모양이군요
--사실대로 말하면,
SS 재벌의 자금력과
능력으로 아기를 금방
찾을 수 있었겠지만
난 밀항, 은 원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엉뚱한 비밀을
지키는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
그날 이후 --
머리쓰기에 바빴지
비밀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보은이가
나타난 거다.
그렇게 찾을 때는
자취도 없더니--
흑
흑

그렇다면
정말로?
정말로…
나와 보은이가
바꼈다는 건가요?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구요?
왜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건가요?
그게 사실이라도
영원히 비밀로
묻어야죠.

아냐…
사실일 리 없어…
날 놀리는 거죠?
승준 선생님!
거짓말이죠?
아니라고 말해 줘요.
아냐! 아냐! 아니죠?
제발…!! 제발…!!

겨우 미안하다는 한 마디로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은 선생님이 시작한 일이나 죽을 때까지 책임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두 사람은 같은 배를 탔어요.

어설픈 양심따위 운운하면서 고백할 생각일랑 하지 말아요.

이제 와서 나쁘고 생일에 자살한 아빠와

날 태운 건 선생님이면서 도중에 선생님만 내릴 순 없다구요.

결코 나만 다치고 당하는 길로 끝나지 않을 테니...

노숙자 엄미의 팔로 되돌아가라구요? 승준 선생님도 다시 소매치기로 돌아갈 수 없듯이 저도 그럴 순 없어요.

선생님도...선생님이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지만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사랑하는
가족과 지금껏
날 추켜세워
줬던 친구들이
어떤 얼굴로
날 대할지…
툭
툭

그냥…
나애리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
이 손은
잊지 않을게요.
꼭…꼭
갚을게요.
우리의
비밀을
지키는 게
선생님도
지키고
저도 지키는
길이에요.
제발…
절 계속
지켜
주세요.
보은이에겐
진심으로
쌍둥이 대하듯
잘할게요.

3월 14일에
네가 보은이에게
키스 받으면
보은이를 평생
못 깨어나게 만들어주마
형!
무리 갑다.
보은이를
내가 못 깨게
만드는 일은
HYSTER
보은이를
못 깨게 만드는
재주도,
못 깨게 만드는
재주도,
류진솔
뮤인가 보다
남
지켜준다는
일에
잠시
착각했다
질투가 내 가슴을
후비파는구나
학교의
으슥한 창고에서
보은이와 진솔이가
키스를 하고
있을 줄은
HYSTER

어디 간다는 얘기 없었니?
보은아…!! 해리가 많이 늦는다고 했다지만 너무 늦는구나.
..무슬이에게 전화해 보셨어요?
어쩌된 일인지 무슬이도 안 받아
톡
둘이 데이트 하느라 늦는 거라면 다행이지만 ..
곧 오겠지.
두 사람 같이 있겠지
무슬이가 이상했는데 무슨 일이 있나?
헤리도.. 해랑이처럼 나에게 실망해서 방황하나?
미안하구나. 쉬어라
에이
에! 못 들었어요. 해리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지? 핸드폰도 안 받고…

나에게 늘 잘해주고 웃어주던 무흘이가…
마치 하나 사람처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날 보고도 들러도 모른 척 그냥 가버렸어

설마…
봤을 리는 없고…

생각할수록 진짜 열받아
쓱 쓱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게 오신이었어
어떻게 공감하는 상대에게 교활하고, 비겁하고, 양심하게 기습키스를 할 수 있냔 말야
-나쁜 사람은 아닌 거 같았는데- 나쁜 녀석!
부들 부들
맞을 곳 없어도 따라갈 걸 -우습게도-
무흘이에게 죄진 기분이 들어.

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도저히
못 당할 것
같아서
자신 없어서
도망갈
생각밖엔
못했지만,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건
무슬이의
키스였어
혹시
몇 번이고
물어봐
내가
무슬이를
좋아해도
될까?
-이 집에서만
나갈 수 있다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는 너만의 보은이가,
너는 나만의 무슬이가
될 수 있는 거야?
NIKE
해리랑 내가
정면으로 붙는 건
게란으로
바위치기겠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지?
보은이 네가 원래의 나라고…
비슬
16살 딸 생일에 자살한 무정한 네 어빠가 내 아빠고
내 가족이었던 해랑이도, 엄마도, 이빠도 이젠 네 가족이라니…

이런… 기분 처음이야
어떡해…
이무것도 배앗기기 싫어.
이런 비참한 진실 따위 알고 싶지 않았어
뱃속깊이 찬바람이 스며. 겨울에도 이렇게 추웠던 적은 없는데
이제 와서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절대로!
죽어도 내 인생을
뺏기지 않을 거야
재벌의 딸로
흔하게
스포트라이트만
받고 살아온
나에게—
삶에 실에
되돌릴 순
없어
무흘아!
무흘아! 무흘아!
난 비보처럼
이 와중에도
너만 생각나
무흘아!
해리?
보고 싶어
무·
무흘아
해리야!
이 밤에
뭐하는
거야?
HYSTER
찾아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왜 추저앉아서
울고 있어?
에타게
네 이름을…
속으로만
불렀는데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나봐
네가 이렇게
나와주다니…

…나…
너랑 바다
가고 싶어.
지금 갈래?
나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었니?
…도대체 너에게
내가 뭔데—
일어나
—몸이 왜
이렇게 차?
HYSTER
그냥 좀
걸어
다녔어
…바다 가자.
응? 바다가
보고 싶어.
무릎아!
HYSTE
…정말
네 우석엔
못 당하겠다.
나쁘리!
HYSTER
그래!
가자!

배 경
무흘이를 만나는 순간 거짓말처럼 추워서 떨리던 몸이 멈추고, 보는 것만으로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
EXIT
HYSTER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네 어리광을 받아주는 무흘이의 어깨가 편안하다.
이렇게 너에게 기대고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이 슬픔을 견딜 수 있을지도.
묻지 않는 이유가 이미 알아서라면?
송준 선생님이 혹시 말한 건 아닐까?
아니! 내게만 말했다고 했어.

쏴야
세벽 해돋이 보고 설렜다면 살컷 뵈.
도착했다.

바다는 항상 저기 그대로 있다.
다음엔 떼쓰지 말라고…
그 밤에 당장 안 보러오면 바다가 사라지기라도 하는 듯 굴어서
느닷없이 네가 바다가 보고 싶었던 이유는 모르겠지만.
해는 지는 것보다 뜨는 게 좋아.
장우혁의 노래처럼 지지 않는 태양은 더 좋고…
고마워, 무흠아! 바다 보러 함께 와줘서.
니담지 알게 이 정도에 고맙단 소릴 다 하고 소박해졌네

내가 맞았어
16살이 가장 슬픈 생일이라고 했잖아
여기 데려와준 걸로 갚으면 안 되냐?
생일날 못 갔다고 여태껏 삐쳐있긴…
나, 한 품으면 오래 가. 그러니
HYSTER
바다 보러 같이 와준 네가 바닷속까지도 따라와 줄까?
해리야! 장난 그만해
3월의 바다는 춥다. 게다가 이 새벽에!
EXH
훗! 따라 죽지는 못해도 죽게 두지는 않겠네
더 꽉 잡아줘.
날 바다에서 지켜줬듯이 이런 상황이 오면 구해줄 거지?
뭐?
철썩
철썩
분명, 넌, 그럴 거야.
그럼 난, 너만 믿고… 그냥…산다.

해리야! 무슨 일이 있니?
나 때문만은 아닌 거 같다

우리, 생물공부 할까?
…A형과 O형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자식의 혈액형은?
A형과 O형이지

흣! 꼭 그렇지만은 않아. 가끔 변이도 있데

해리야! 연락도 없이 외박을 하다니…
가족들 모두 네 걱정으로 한숨도 못 자고 있었는데 넌 여태껏 무슨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너…연락 안 했어?

혈기 띄우러던 참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두 사람, 같이 있었어?
EXIT
HYSTER
무사해서 안심했다. 하지만 이젤 화가 나는구나.
아빠! 무늘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바다 보고 싶어서 졸랐어요
전화도 못해?
그리고 웬 밤바다야?
울먹
울먹
엄마!
와락!
이제 됐어 을지마.
·야단도 못 치게—
EXIT
HYSTER
죄송합니다.
·전화 드렸어야 하는데…
……
당분간은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보기 싫다.
그렇게 안 봤는데 너도 남자였구나.

그만
가보겠습니다
꾸벅
HYSTER
또
나애겐
시선조차
안 준다.
HYSTER
무휼아!
매리 아버지가
네게 화냈다고
너무 섭섭해
마라.
아닙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바다구경 간
저희가
잘못이죠.
에취
이런…감기
걸렸구나
승준 선생님
부르자
아니!
싫어. 엄마!
싫다니
……
승준 선생님!
부르지 마.
내겐 의사보다
엄마가 필요해. 엄마는
가장 좋은 의사야.
엄마가
안아주고
재워주면 금방
나을거 같아.
…놀래켜놓고
어리광은.
따뜻한 차
끓여줄 테니
침대 가서
누워 있어.
무휼이도
마시고
가라.

야노!
친구야!
넌. 내가
바래다 주마.

어떻게
된 거야?
뭐가?

HYSTER
JE
네가 꾸밀 꿈은
보은이는 어쩌고..
사랑 못 말리는 건
줄 알았는데
내 발대로
정리한 거냐?

그렇다고
진심 없이
내 동생에게
희망고문 따윈
하지마.

날 보자마자
바다가 보고
싶다는데..
HYSTER
JE
분위기가
묘소의 해리담지
알아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거다
쳇!
시시하게
겨우 그거냐?
바보같은
너석!
우릴 격정시키고
외박까지 해놓고
고작 그딴
이유라니..

해리..무슨
고민 있어
보이던데
너 알아?
JE
해리
고민은 다
너 때문이지
그걸 몰라서
나에게 묻냐?

신경은 쓰이나?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나 때문이 아닌 거 같던데
너만 한눈 안 팔면 우리 해리가 고민할 일이 없다
EXIT
헤리?
두 사람을 사랑할 배짱이냐?
3월 14일 안에 보은이에게 키스 받는 거다
내 기분도 꿀꿀했고, 전처 헤리답지 않아서 기분전환 좀 하러 간 거야
바보 너석!
털썩
아… 피곤해, 형!
네가 마음 쓸 건
형이 단 도와줘도 보은이는 행복해질 거야
띠시…
해리도 엄마 일이 신경 쓰이나?
유난이 엄마에게 달라붙어 응석 부지 부리던 개…
최무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냐?
…헤리와 바다 보고 왔어, 형! 이머 그 집에서 혼나고 왔으니… 봐줘.

너, 보은이 포기한 거냐?
아니면 도대체 키스 받을 자신이 없는 거냐?
보은이가 나보다 류진술을 좋아하는데— 우리 형이 비장의 무기로 널 평생 행복하게 웃게 해줄 테니 내게 키스해 달라고 말한다면 보은인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기회를 놓친다면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네 매력이 안 통하는 모양이군.
…두렵지만 네가 좋아한다니, 내가 벌인 일 내가 마무리 지어줄 생각으로 도와주려 했는데.
과두견씨가 생일에 자살한 심리를 들었었지?
사랑?
자살이?
정말은 보은이를 사랑해서다
3월 14일, 밤 12시까지만 카운트다운 한다.
죽으면서 돌려준 쪽 입장에서 보면.
서두르지 않는 게 테겔스러움이 지수엘차도 大 다고 발을 동동거릴 거다.

형은 정말 이상한 소리만 해.
EXIT
HYSTER
곽두건은 몰랐겠지. 주소만 적고 유서를 안 쓴 이유도 쌍둥인 것만 알고 이처 이란성인 건 몰랐기 때문에
그 주소로 가면 보은이는 무조건 자동으로 윤해의 신분으로 초복될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
당신이 몰래 보은이를 훔쳐가 버리는 바람에 내가 몹시 난처해질 거라 것도
당황해진 내기 히라를 보은이로 바꿔치기 했을 거란 것도 몰랐으니 그냥 당신 혼자 죽으면 끝인 줄 알았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히 제 일인데 고맙긴요…
원일인지 어린아이처럼 적반 붙잡고 선생님을 부르지 못하게 고집이자 퍼에요
겨우 잠들었는데 열이 많이 올라서…
아기 때 몸이 약해 속이 탔던 기억에 겁이 덜컥 나서요.

불안해
하고
있구나
해리야!
약속하마!
3월 14일.
밤 12시까지기
내가 정한
공소시효다
그때까지만!
빌어라
난, 그 이후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저절로 밝혀지지
않는 한, 영원히
네가 공주다.
안녕히
가세요.
아직 한 자고
있었구나. 그래!
잘 있어라.
저기…혹시…
무릎이가
저한테
뭔가 화난 게
있나요?
아. 아뇨.
됐어요.
…
그래!
뭔지 몰라도
간뜩 골이
나있는 거
같더라.

저한테 골이 나있더구요?
무톨이를 좋아하니?
그럴거면 술거지만 말고 네 마음을 표현해
혼자만 사랑하면 지치겨든.
키스하고 무톨 골은 건 너를 사랑한다는 무톨이의 고백이다
무톨 꼭는.건 봐주마 네게 뱃도 있으니
너도 꾸 용기를 내서 너석에게 고백하고 키스해줘. 그럼 마법처럼 모든 게 풀릴 거다
화이트데이에 너석이 네게 사랑 한 알이라도 주면…
내가 불러도 모른 채 지나가고
해리와 단둘이
밤비다를 보러 가고
네 마음에 내가 대답하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거야?
정말 날 사랑하긴 하는 거니?

내가 네게
키스하는 순간
난, 이곳피의 인연을
사라지게지.
그건 싫지만-
무슨이가
변하는건
더 싫은,거
같아
까아-
보은아!
왜 그러니?
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안심이 된다
엄마의 품 같아·
괜찮아,
진정해!
그게
꿈이어서
다행이야

안녕~♬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니…
아는 척 하지 말아줄래
어? 왜지?
꽁감은 누가?
우린 이미 아는 사이에, 공감까지 하는 처지잖아
리~
취소했잖아.
…키스까지 한 사이에
멋대로군, 혼자 공감했다가 혼자 취소했다가…
사귀자고 할 때도 그러더니 이젠 또 안면몰수 하자니…

바이바이
화이트데이에 사탕 안 줄까봐?
너희, 아직도 사귀고 있었냐?
네가 주는 사탕 안 받아
아직도라니? 다시 사귀기 시작한 거지.
네 어머니 반대는 어쩌고?
…그게 우리의 어려운 숙제다
네가 토 일요일에 데이트 안 해주고 촬영 있어서 피곤하다봐
누가?
무슨 일인데 보는이가 저래?
아…그게 아니면

무한
하늘을 보고 얘기할걸
안녕! 좋은 아침이야.
곧.. 비 오겠는데 무슨 ·
저기.. 하늘 화창한데
무흘이 마음엔 먹구름이 졌거든..
...저녀석 혹시. 우리 사일 질투하나?
팔도 안 되는 소릴 하지마.
너랑 내가 무슨 사이라고 질투를 해.
그런데.. 싸가지 공주 해리가 안 보인다.
감기로.. 결석이다.
두 사람이 어젠 같이 결석하더니.
무흘이 너도 감기였나?
어려웃.. 네 숙재나 풀 생각해라.

언제까지 똥해
있을 건지
설레!
아..
그런 건
키스는

쿠-앙

콰당!
괜찮아?
•네 마음만 전하면 네 고백에 답이 되는 거지.
용기를 내자
화이트데이에 네 사탕을 받을게.

누가 너보고 달랬어?
그러니까 받아 달라고…
네가 승준 선생님께 주려던 초콜릿 대신 먹었잖아.
중년 취향 아니면데… 우리 형도 요즘 자금 사정 안 좋다.

어린 아이나? 주겠다는 류진솔거나 받아.
난 좋 생각 있으니까 ……•….

그깟 초콜릿같은 주지 비싸서 나만 쪽 팼나 보군.
그깟 사탕값이 얼마나 한다고…
…최꽁!
특하면 꽁하잖아.
그래, 난 꽁이다.
이게 아닌데…
풀어주려고 했다가 더 화나게 했다.
하지만 나도 화났어
사탕 한 알도 아까운 네가
이 돌반지 선물할 땐 얼마나 간 떨렸겠구나.
..지켜준다더니
즐거운 생일도 만들어 주더니
신경 쓰이게 계속 골만 내고
치사해서 돌려주고 만다.

뭐 해?
어? 해리야! 아직도 감기가 심하구나.
아냐.
기침만 조금 날 뿐이야
더 누워 있지.
…하루종일 잠만 잤더니 눕는 게 더 피곤해.
.. 그 반지… 소중한가봐.
.. 아… 아니…

아냐.
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그런 거 전혀 없었어.
…모르겠어.
모르다니?
…응… 몰라! 전혀 모르겠어
너와 단둘이만 살았다며? 네 아빠인데 몰라?
사는 동안 널 학대했니? 때리거나 괴롭혔어?
…넌 이렇게 산 아이가 아닌데… 미안하다. 늘 이 말만 달고 사셨어

무서운 아빠는 아니었나 보구나
가장 무서운 아빠가 됐지만
사는 동안은 좋은 아빠였어. 마지막엔
갑자기 왜 내 아빠에 대해 묻니?
...그냥.. 궁금해서..
네 고모 찾고 있어
콜록
콜록
그분은 네게 무척 좋은 사람이란 걸 믿는다
해리는 나보다 더 우홍이를 오래 좋아해 왔어
기침 심하다 기다려, 차 끓여올게
왜 하필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걸까-
히루빨리 고모를 찾아줘서 이 집에서 내가 나가주길 바라는 건 당연하지
역시 해리를 보면 약해져.
하지만 나도 솔직해져야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겉으로 완벽한 성격도 아니니까 허리가 아까워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편해지네
3월 14일
꺄아—
어머나—♡
무슨 일인데 여자들 비명소리가 학교에 진동하냐?
미술반
무훌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내 실전 무훌이에게 사탕을 받게 될 줄이야.
음악반
연극반
체육반
최무훌! 너. 내게 달랑 막대사탕 하나야?
전교 여학생에게 사탕을 다 뿌렸다며?
여학생 중에 단 한 사람 못 받은 사람도 있어.

치사한…
최무휼!!
사탕으로
초콜릿 못 받은
복수를 하다니…
꽁한데다 쪼잔
하기까지…
그 흔한
사탕 한 알
못 받았다고
저렇게 보는
표정은 뭘까?
야! 곽보은!
따로 받았니?
무휼이가
왜 너만
안 준 거야?
이유가 뭐래?
비커라!
그 이유는
내가 알려줄
테니…
류진슬이다
진슬아!
이유가 뭐야?

손?
손 내밀어봐.
단 한사람
너에게
주는 거다.
달링!
우리가
커플
이거멍..
와아ㅡ결국
이 사탕은 무릎이가
차인 상처!!
류진솔이
아직도 사귀고
있다니, 쯔
오래 가는구나.
헉?
상처는 무슨?
먹기 싫으면 내놔.
아냐!
먹을게 아니..
대대로 가보로
전할게.
달랑
한 알이냐?
그래도 너처럼
혼하진 않지
네가 남 할
할 처지야?
내게도
막대사탕
하나 주고.
용돈
없다며?
저 루펀
사탕들은
뭐야?
...울라도 된다
좋아! 그건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물라도 되지만
보은이만 쏙 빼고
안 준 이유는
알아야겠으니
말해봐

해리, 넌 제일 먼저 겼잖아.
그래! 나도 궁금해! 뭐라고 말할지.
보은인 마음이 넓어서 꽁한 성격 아니거든..
아, 깨다
...하하! 보은이에게 숙 졸고 꽁하다고
눌림이라도 깜았었나? 잔살들 말했네

잠시만 그대로 있어.
내 마음의 반을 너에게 준다.
반은 우리 엄마 몫이거든...
내가 이 복경이를 왜 반아?
우리 교제를 반대하는 엄마 마음을 헤지.

우리라니? 누구…?
당연히…
내가 방금 목걸이 걸어준 사람과
내가 사귀는 거지.
내 어머니의 반대에 널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키스해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너무 뜻해. 그런 키스론 아무에게도 사랑 받지 못해.
공감한 처지로서 키스의 당인이 될 때까지 사겨줄게
절대로 싫어.
이건 네 어머니에게나 선물해. 난 받을 이유 없어.
벌써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다니 가륵하다. 하지만… 너에게 줬었던 선물을 드릴 순 없지.

좋은 선물이
생각났다.
과두전의 말에게서
손주를 낳아드린다면
그것도 내 어머니에겐
괜찮은 보상 방법!!
딱
헐수 없이
아기 셋은
낳아줄 때까지
사귀려면 인연이
길겠는걸

웃기지마. 내가 무슨
씨받이인 줄 알아?
포컥

꾸악
고 1에 청혼받다니
굉장해.
가장 멋진
화이트데이 선물을
받았구나. 보은아!

해…리야…
네가 신났구나.
장단 맞추지 마.
토옷
네가 누군갈
부러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언제 어디서나
어느 날에나
주인공은 너니까.
지금 나랑
커플반지
나눠끼잔
얘기예요?

넌, 내 여자니까.
갑자기 날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선배님!
그렇게 거절당하고도 모르겠어요?
SS 재벌 딸이라 선가요?
· 내가 널 처음 본 건 파티장이 아니고 도장이었지.
나도 그때 궁금했다 SS 재벌 딸이 왜 이런 거친 운동을 하지? 피아노나 칠 손으로 격파라니 ·
그때 넌,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가 가장 잘 하는 걸 택한 거라고— 음악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 신세지만…
돋보이는 법을 안다고 느꼈지.
고작 그런 이유로 날 좋아했단 거예요?
그때부터 널 주시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특별한 존재로 느끼겠어.
내가 안악 재벌 딸이 아니었다면요?
그런 안악을 왜 하지? 네가 바뀔 리도 없는데.
특별할 거 없어요. 어려서 몸이 약해 자주 아팠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 쓰다 보니 운동을 하게 된 거니까 ·
그 선물은 다른 주인 찾아봐요. 난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무용이분이니까.

무흘이 너석과 진도 좀 나가지
더른 주인은 없다.
확 익
난 원래… 거절당하는 걸 잠지 못하거든.
헤리 첫사랑에 대한 예의로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콰직
멋진 척 했더니 환상이 깨지지 않나 본데—쌉아 치야 오려나?
거절당한 분풀이를 무흘이에게 하겠다는 거잖아
무흘아!
동생인 진솔이도 심하게 괴롭히는 시람인데 저번 싸움에 당하고도 잠잠한 게 오히려 이상했어
…음… 멋시야?
너, 어제 잘 안 자고 쭤 했길래?
…아… 가야겠다.

잠깐만 기다려!
정말 딱대사랑 하나로 끝내려고?
하나면 됐지 뭘 더 바래?
진솔이는 보은이에게 버싹 보이는 목걸이 선물도 하던데…
그래?
기다리라니까!
키스해줘. 그걸로 화풀게.

왜 이러니? 해리야!
그때… 키스는 끝이라고 했잖아.
끝이 곧 시작이야 그럼 내가 해주지 뭐
…제발 참아다오.
목 졸여.
싫어. 키스해 주든가 받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학교에서 키스하면 이른다.

...보은이 넌, 이럴 땐 모든 책 해줘야지.
누구에게 이른다고 협박이니?
괜찮아 내 사랑은 부모님도, 선생님도 못 말려.
이를 사람 많지 학교니까 선생님! 집에 가면 부모님!
잠깐만 봐. 네게 할 말이 있어.
어라! 너 보 내 맘에서 다툼고 유독히 너
-뭔지 아니까 수업 끝나면 네 물건과 16년 추억이 쌓인 곳에 들렀다 가.
일긴 될 알아?
승준 형한테 받아달라며?
저기에 뒀으니 작접 와서 가져가라고... 난 조퇴할 일 있어서 먼저 간다
승준 선생님이 보은이에게 뭘 주는데?
화이트데이 선물!!
쿠앙

설마 ..
오늘 모든 걸 말할 셈인기?-
내가 그렇게 울며불며 부탁했는데
안돼! 절대 안돼!
쾅
에고, 깜짝이야.
애 떨어질라.
태아는 건강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 뭐가
급해서..하긴, 어린
어학생이 산부인과
들락거리는 걸 보니
알만 하네.
하하!
그런 거
아닙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탁...
헤리야! 무슨 일이냐? 숨도 안 쉬고 달려온 모양이구나
하...하아... 오늘 하아...
.. 보은이에게... 보은이에게 얘기할 생각인 거죠?
3
1 2 3
8 9 10
내가 부탁했잖아요
오늘이 3월 14일이군 보은이에게 드디어 무휼이가 키스 받았나..?
뭐라구요? 여기서 키스가 왜 나와요?
난 지금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라구요
약속했거든...
오늘 12시 안으로 보은이가 무휼이에게 키스하면,
평생 웃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
...키스는커녕 무휼이가 보은이에겐 사탕 한 알도 안 줬어요
그럼, 12시만 넘길 기도해 줘야 걱정이어서 달려온 거지?

'나를 약올리는 사람은 모두 벌 받을 거예요' 라는
하하하! 주는 거니 고맙게 받으마.
이왕이면 거액에 써 있었다면 좋았을 걸 1파운드라 아쉽구나.
12시란 넘으면 영원히 비밀 지킨단 거죠?
…그래!
그런데 왜 무릎이가 보은이의 키스를 받으려고 한 건가요?
네 운이 강한 거니까 ..
위기상황을 대비해 보험 든 거지.
내 운명을 바꾸는 당신은 안 다치려고 동생 내세워 미남계까지 쓰고.!
결국 상처받는 건 나 혼자란 얘기군요.
이거 받으세요. 저독하게 고마워서 주는 제 선물이니까..
영국 동전 1파운드에는 행막문구가 써있대요.

앗! 뜨거..!
뜨거..!
..거봐! 초보는 쉽게 성공 못해 설탕공예가 쉬운 줄 아나?

일주일 내내 애쓰는구만 내가 만들어 준다니까~
EXIT
아뇨! 제가 직접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누굴 주려고 그래? 당연히 연인이겠지
EXIT

그림을 잘 그린다더니 손재주가 아주 좋은 편이라 이 정도 설력이 가능한 거야!

색깔을 넣고 싶습니다, 선생님!
EXIT

EXIT
아!! 드디어 완성했다.
하하! 아예 내 제자 될 텐가?

나도…
나다.
받으러
오라다고
오다니.
…설마 진짜로
승준 선생님이 주는
사탕은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들어갈
필요
없는데…
니가 사탕에
정착할 줄이야
…꽁해져서
나만 안 주니까
더 받고 싶잖아
그런
핑계고…
…왜
꽁해 있는지
알고 싶어.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모르겠어.
안 들어가고 뭐해?
언제든 너에겐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좋다고 했잖아
까똑

아빠와 함께 했던 16년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기 싫었어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고?
어쩔 수 없구나
미안하다 난 이렇게 될 아이가 아닌데—
나만 내가 없었더라면.. 방해 받지 않고 네 재능을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아빠가 가진 능력 안에서 늘 네게 최선을 다해준 아빠였기에 난, 널 볼 면 없이 지랐는데…
아빠는 왜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 뭐가 미안해서…
공연히 이곳으로 부른 건가? 아빠 생각에 힘들게
우리 형이 그러는데 네 아빠는 널 많이 사랑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거래
이건 위로가 되는 말인가?
그럴 아빠가 돌린 거야 아무리 돈 많은 집에 보내 날 호강시켜 주고 싶었더라도 남의 집에 얹혀사는 것보다는 초가집이라도 아빠랑 사는 게 난 더 좋아
—그리고 난, 곧 그 집에서 나올 거야
혼자 독립해서 살고 싶어.

립드니?
…아니…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게 너무 잘해 주셔
사탕 목걸이까지
자! 이게 마지막…
사탕 부케!
와아! 예쁘다
고마워!
하지만 거긴 내 집이 아니니까…
알아! 이거지?
참, 내가 온 이유는.
사탕으로 엮어 만든 왕.
형이 주란 건데 나한테 고맙단…
정말 승준 선생님께서 주라고 한 거야?
네가 초콜릿 주려던 사람이 누구였는데?
바보야! 너잖아
…승… 준 선생님…
푸욱

아
아
네가 어린 형수님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난 그만 가볼게
그런데··
·넌 정말 안 주는 거니?
나한테··받고 싶은 이유가 뭔데?
그렇게 벅차게 받고도 더 바래?
응! 이왕이면 너한테도 받아서 사탕가게 차릴려고··
··네가 내 초콜릿 받고 싶었던 이유랑 같아
달라! 초콜릿은 달콤한 사랑이지만.
사탕은 당신을 귀여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
네가 아무리 소름끼치게 귀여워도 난. 너와 친구하기 싫다.
그래서 사탕을 안 준 거야?
꽃해서 복수한 게 아니고?
꽝한 건 맞다.
아무리 나 혼자 널 짝사랑 하는 처지라도 내가 다른 너석과 키스하는 걸 본 순간부터는 실실 웃음이 나오진 않아.
키··· 키스 ·····?

네가 나람
사귄 것도 아니고,
화낼 자격 없는데도
심장이 꽁꽁
얼어붙은 채
늘 따뜻했던
네게서 찬바람이
분 이유가…
그런 얼굴
할 필요
없어.
안 그럴려고
애써도 래동어
안 된다
어떡해
믿한 상대와
키스하고 싶은 건
당연한 감정인데…
네 말 신경
쓰지마
그게 학교
창고인 게
모범생으로서
충격이고,
네가
선택한 상대가
내가 아니란 게
유감이고
슬픈 거지…
천참아
너만
행복하면…
널 지켜주고
싶었는데…
내 역은
아니었나 보다.
미안…
아참.
…비싼
열쇠목걸이
받았다며?
포든 책
했어야
하는데…
헉
어쩌다 보니 똑같은
열쇠를 주게 돼는데,
절대 따라한 건 아니다.
이건 싸구려 진짜 열쇠고…
투시라도 해 끝전 필요
하거나, 창고 좋아하니까
맘대로 들락거리라고.
내 것이 아닌
다른 너석 것을
지킨다는 건
기사가 아니고
수위 같잖아.

대문 안 통하고 담벼락에 창고문 있으니까 바로 창고 방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이반!

크리스털 엠쇠고리에~ 내 웃는 얼굴을 글파,함께 새긴 거니?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 뜨기 직전~ 내게는 웃는 것만

뭐가 이반이야?

네 이기반 하고 가면 끝인 거니?

나도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흑역사였던 작년 겨울,
따뜻한 네 덕에
동사하지 않았는데
키스 때문에
네 심장이
꽁꽁 얼어죽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기 때문이야
converse
뭐…너도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닥친 키스엔
못 당하잖아
보…보은이야!
이 키스의
의미는 뭐지?
바보!
네가
무릎 꿇은 건
내 기사작위
받은 거라며?
난, 지킬
집이 없는데
무슨
수위야?
하긴
바보니까
공주를
거절하고
가난한
고아
소녀를
좋아하지
…내 기사는
너야. 그런데…
너무 무능력
해서 문제다.
키스 당하는 걸
보고도 안 지켜
줬다니…

부실한 기사니까 앞으론 너도 내가 지키고, 나도 내가 지켜야겠다
…내 보은 기사로 정식임명 해줘.
너만의 짝사랑 아냐. 나도 널 사랑해
…이제— 해동 좀 됐니?
내 명절 하나 더 늘었다 3월 14일!!
와 럭
꼬옥
보은아! 너무 기뻐서 녹아버릴 지경이다
바… 받아봐
아! 잠깐만…
왜?
왜긴? 밤 10시다 2시간밖에 안 남은 거 알지?

시탕 한 알도
안 줬다는 보고 받았다.
포기했다면 그냥만
집으로 퇴근하려고
하는데..
나도 무척
궁금했는데..
형이 어떻게 평생
보은이 곳게 해줄지
보여줄 차례야.
약속 지켜! 방금
우린 키스했거든..
그..그럼
새길 하면
어떡해!
보은이가 네게
한 키스라야
유용한 거다.
형이 주문한
모든 사항이
마법처럼 오늘
다 일어났어
침울해하던
네 목소리가
무척 밝아졌구나.
보은이 바꿔봐.
보은아!
형이 바꿔
달라는데.
헉..
보은이에요.
알다..
촉하한다.
사랑에
응감하구나.
키..키스한 거
아니에요.
인공호흡 같은
거자..
어? 보은아!
거짓말 하면
형이 준비한
이벤트
못 받아.
키스가 아닌
인공호흡
이었다?
흣! 아쁜까?
인정해? 말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젠 장밋빛 인생이
기다리겠구다.

무흘이를 잘 부탁한다
우리 교제를 흔쾌히 허락해 주시다니 의외야
-어- 안전운전 하세요.
응? 그래 네가 날 걱정해 주다니 이완한 걸..
형이 뭐래?
무흘아 너 데려주래 일어 가볍다고-
거기
하하! 난 아무나 잡고 다 자랑하고 싶은데..
보은인 대겨다. 무흘이와 보은이는 서로 사랑한다.
시끄
늦었으니 그만 갈래
헤어지기 싫지만... 정말 늦긴 했구나 바래다줄게 가자!
네가 웬일이야? 자원봉사를 하질 않나 해리야 무흘이도 없는 병원에 아직도 있었니?
..승준 선생님께 바래다 달래려고요.
우리들에게 고마워서 무흘이 대신 봉사하러 온 거야?
무흘이한테 사탕 많이 받았지?
요즘 침울해 있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승준 선생님께서 그러던데, 여친 사탕 사줄 용돈을 안 줬더니 삐져있다고..
병원 환자들에게 무흘이 인기가 워낙 많잖아. 그 얘기 듣자마자 서로들 사탕 사주느라 경쟁했다니까
아....예! 가득 받았어요. 감사해요.

가만—
오늘까지만 넘기면
영원히 침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서
승진 선생님
옆에 있었는데
오판한 거 아냐
—우홀이
성격에
보은이만
쓱 빠져도
끝까지
안 쫓을 리가
없어
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받으러 와,
네 추억이 담긴
곳에 들 테니—
그 장소가
어디지?
보은이니?
너, 지금
집에 있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왜, 대답을 못 하고
낑낑대니?
설마
지금까지
우홀이랑
같이
있었니?

이게
쭈뼛거리면서
당황하는 게
수상해.
흙
돌이 같이
있다고 해도
기껏해야 사탕이나
주고 받았겠지
소심한 보은이가
먼저—키스할 맘은
없을 거야
흙
야!
.. 헤리야!
심해라
또 영책
거리는
거예요?
다신
안 나타
난다더니
.....
걱정마.
나만은
변치않는
네 편이다
발끝
이야.
비켜요.

해리야! 영원히… 행복해야 한다
난, 너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 꼭 지켜주마
정말 이상한 아이지
곧 득립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랑이 집보다야 좀 괜찮지만…
내가 있는… 우리 집으로 올래?
나 돌는 게 싸우고 특기인 집안이라 다들이 좋아하는 여자와 같이 산다고 싫어하실 리 없고
아마 형이 평생 널 웃게 한다는 이벤트가 그거 아닐까 생각해 봤어
해리니?
띠리
응! 우리 사귀는 거 당분간 비밀로 해줄래?
내가 비밀이 없는 성격인 거 알거든…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살짓 사랑하자. 서로 지켜주면서…

네 형 처음 봤을 때 날 나무 쏘아보듯 강렬하게 쳐다봐서 무서웠는데·
하하! 그건 형의 야심이 너의 동장에 무너져서 그랬을 거야 이 집에 날 팔아 호의호강 할 심산이였거든··
하지만 이젠 포기 시켜 놨으니 안심해
후회 안 하겠어? 재벌 집 사윗감 1순위 후보에서··
--네가 후회되는 거 아냐? 재벌집 떠나 우리 집으로 올 생각 하니까 설설 해서···
풋! 아니·· 가슴이 뛰어.
너랑 같은 집에서 살게 될 수 있다니 마음에 봄이 오고 햇빛이 비친 것처럼 따뜻해
--거짓말쟁이 보은이가 정말 솔직해 졌구나. 내가 먹었던 초콜릿의 진짜 주인은 형이 아닌 나였지?
알아서 삼삼해 · 그만 솔직할래.
정말 형 거였나? 아까도 안전운전 하라고 했기고··
그건 ···
··너, 꿀 먹어?
투슨 꿀?
술준 선생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너랑 내가 함께 타고 이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운전 도중에 앞을 안 보고 나를 보며 사탕을 달라셨어.
사탕을 먹여주는 순간에 마주오던 차와 정면충돌해서 교통사고가 났어.
사고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으니 상대측이 보상금을 달라는 거야.
그 뒤에·· 선생님이 쓰러지셨고, 나랑 네가 부축하려 달려갈 때 네가 준 금반지가 빠졌어.
하지만 반지는 내가 다시 찾았는데

그 꿈을 꾼 후부터 아무래도 송준 선생님이 걱정되는 거야.
그 정도면 네가 꿈 해몽 해줄 수 있지. 나한테 못되짓 하고 사랑 못 받을까봐 무서웠던 거지
EXIT
CONCERT
이렇게 행복하다면 유치한 채 살래
우리, 7살로 돌아가 볼까?
보은아! 넌, 내 새시야. 우리 크면 결혼하자.
봐줬다. 자! 잘미 1송이는 우정이고, 잘미 3송이가 사랑이라길래..
사랑 만드느라 애 좀 썼다
와아! 너무 예뻐 진짜 장미꽃 같아
몽! 신랑아! 나 클 때까지 기다려 바람피지 말고..
지금 만나서 다행이다
이걸 직접 만든 거야?
기다림이 10년은 돌았잖아
이젠 두렵지 않아 더이상 슬프지도 않을 거 같아
..우리 나이에서 10년 텀이면 딱이겠다
넌 사랑에, 난 초콜릿에 집착하는 개 어린아이 같지?
헛! 정신 연령이 7살이면 어때?

무흘이와 보은이가 키스를 하다니
헉 10시 35분……!!
10 35
내가 널 완전 잘못 봤구나, 곽보은!
이제 보니 꼬리 9개 달린 백여우였어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뺏기지 않겠어
내가 싫어! 왔든 한.. 네기 되찾아갈 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무흘이는 내 거야.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나오는구나.
설마.. 이미 알해준 거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저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순 없잖아
어? 해리!
해리야!
무흘이 옆에 있을 수 있는 여자는 단 한 사람, 나야 왜지? 너답지 않게 대범해진 이유 말야!

…더는 마음을 속일 수 없을 거 같아서…
…너희 집에서 독립할 거야
미안해, 해리야!
우리 집에서 독립하겠다는 건 비밀을 아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내가 도전장을 던지다니
아니, 도전장이 아니라 미처 두 사람에게 청첩장 받는 기분이야
무휼이 넌, 보기 싫으니까 빨랑 가버려 보은이 넌, 들어가자.
암전 하게만 보고 방심했더니 물린 꼴이네 독립? 그래! 기사같은 널 치워 버리겠어
EX
쇼윽

너…
언…?
오지 않길
바랐는데…
당신은 끝까지
헤리를
지켰어야지.

도주에
배신하려드니
어쩔 수
없잖아.
…비밀을
자키려면
당신을 죽일
수밖에…
어…
어째서…
어째서지
…?

헤리가…
시킨 건가?

그럼 리가?
그 아인
공주인데…

그…
그럼

…정확히
죽어준다면
이유도
들려주지.
타닥
헤리는
내 딸이거든
…
내 딸이 날 망하게
한 회사의 오너 딸이
되다니…기막힌 인연
이야. 나도 한때는
SS 회사간부였지. 술에
취해서 회사 기밀을 상대 회사
사람에게 누설시킨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고소당해 재벌이
아닌 일반 기선으로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28억이란 돈을 피해보상
하란 판결을 받고 파산하고 말았었지

노숙자 신세가 된 처지로 떠돌다가 댁 아내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당신이 바꿔치기 해준 덕에 내 딸은 편히 재벌 딸로 살 수 있어 안심했는데…
그럼…해리가 곽 두견의 딸이…아니었다는…?
그자는
길에 쓰러진 내 아내를 택시에 태워 그 병원으로 데려가준 거 뿐이다
잘 가.
고마운 은인에게 이렇게밖에 못해서 정말 미안하군.
퍽
이제 와서 공주였던 내 딸을 비참한 노숙자로 살아가게 만들 순 없잖아.
그건 안심해 하지만 죽어가면서도 내 딸을 걱정해 주는 건가? 제정신이 아니군.
옆에서 자라는 걸 지켜보면서 기른 정도 자랐는데…쉽보.
어리석게… 살인자 딸로… 만들다니… 해리에겐… 당신의 존재를… 밝히지…마.

무 슨 일이야
보 온이를 제자리로 되 돌려 평생 못 깨어나게 해준다는
툭
그녀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미 안 하다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서

집이 늦네요
몇 시지?
어? 집이 사준 손목시계가 멈췄잖아 …얼마 전에 산 건데 비싼 거라더니 싸구려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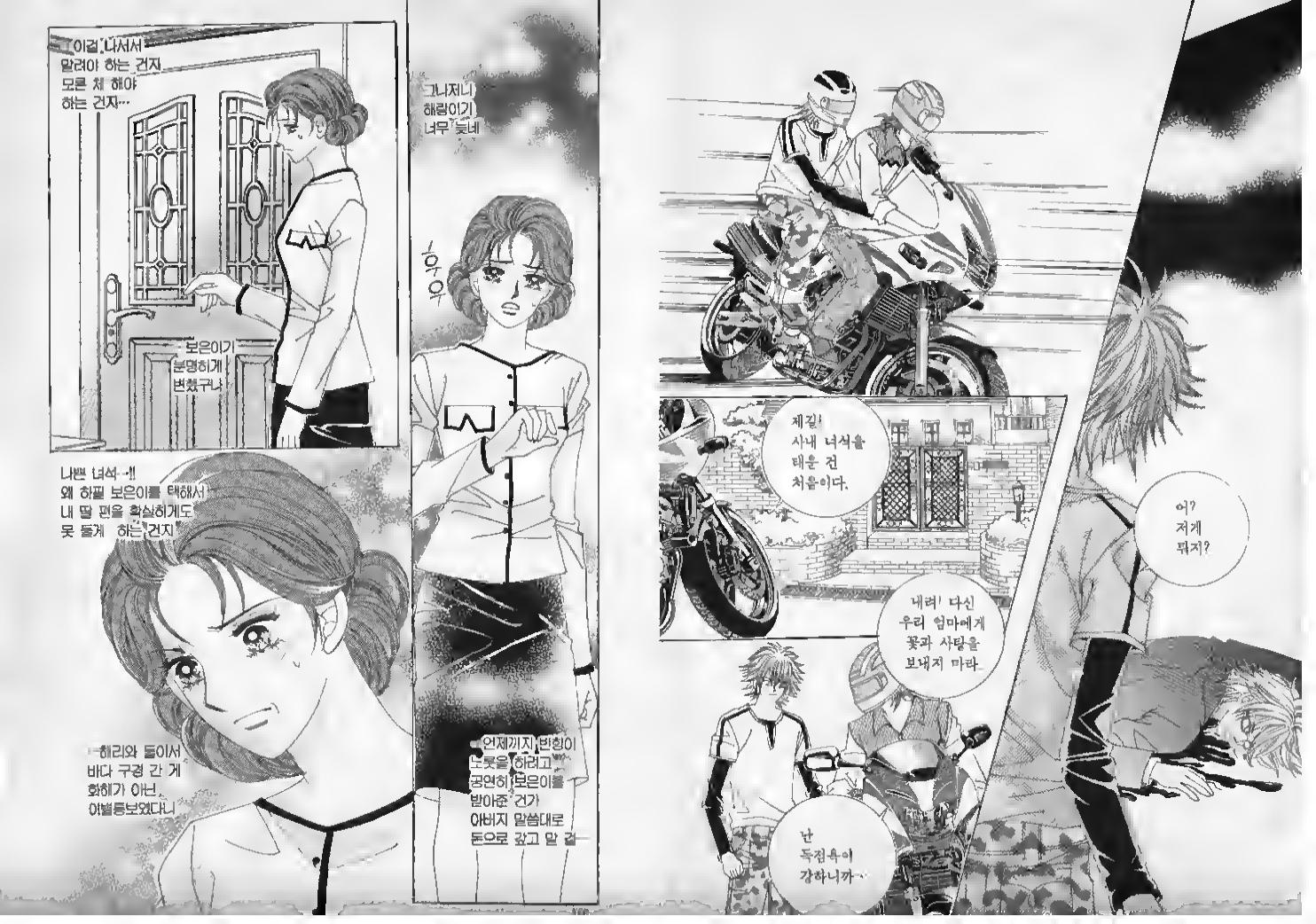
골고루도 받았구나.
뭐로…
아주 달이 찼겠네.
그러지 마.
그건
내 거야.
네가?
병원 사람들에게서 동냥 받은 사랑을 전부 너 갖다 준 모양이지?
너랑 사귀기로 했다며니, 겨지 수준에 맞춰 끌값이네.

무릎이를 넘보려거든 목숨 걸고 덤벼.
멍청하게 네가 차지할 수 없는 남자를 상대로 기대하지도…

닥
사간 낭비도 하지마.

네 푼노에 곰기마저 얼어 붙는 거 같아 무섭고… 떨리지만…
네가 네가 받은 사랑을 버릴 순 있어도 내 마음까지 버릴 순 없어.

아주 강해졌구나. 날 상대로.
화직
이깟 사랑이 사랑 받는 증거인 줄 착각하고 우쭐대는 거니?
사랑을 부셨듯이
얼마든지 네 마음도 부숴줄 수 있어.
난,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내 마음에 솔직해 지고 싶을 뿐
사랑에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건 너무 거창하지만… 꼭 그래야 한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어
이 집에서 나가줄게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헉
사랑에 눈이 멀더니 아주 뵈는 게 없구나. 잠도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하다니…
재수없는 년! 널 처음 볼 때부터 음침하고 싫었어.
짜
악
지킨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네가 아닌 나야. 두고 봐. 그 어떤 것도 너에게 뺏기지 않을 테니.


이걸 다시서
말려야 하는 건지
모른 채 해야
하는 건지…
보은이가
분명하게
변했구나
나쁜 녀석…!!
왜 하필 보은이를 택해서
내 딸 편을 확실하게도
못 들게 하는 건지
헤리와 둘이서
바다 구경 간 게
회하기 아닌
이별통보였다니
그나저나
해랑이가
너무 늦네
휴우
언제까지 반항이
노릇을 하려고…
공연히 보은이를
받아준 건가
아버지 말씀대로
돈으로 갚고 말 걸
제길!
사내 녀석을
태운 건
처음이다.
내려! 다신
우리 엄마에게
꽃과 사탕을
보내지 마라
난
독점욕이
강하니까…
어?
저게
뭐지?

으아아악
덜컥
사람이 우리집 골목 근처에 죽어있어.
스…승준 선생님!!
어? 그 돌팔이 의사?

해랑이의
비명소리가
났는데…
밖이야.

무슨
일이니?
…사람이
죽었어.

꺄아아아
하늘이
나를 돕네요
승준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살해
당한 건 슬프지만
내 두려움은 덜었어요.

…남이도 참 씨어 누구한테 원한 산 건가?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다 당하신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승준 선생님의 죽음에 해리가 의외로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군.
좋은 의사셨는데…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사람의 일이 아무리 한치 앞도 모르는 거라지만 너무… 끔찍하구나
무흘이 에잔… 네가 알려. 곽보은! 끔찍한 사이니까 ……
그 불길한 꿈이 예지해던 게 이런 걸까요
덜덜
싫어 또다시 싸늘해진 죽음을 보게 되다니
퀸참니? 보은아 진정해!
내가 죽을 때가 아냐
무흘이가 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낄 수 있었는데 가슴이 아파
경찰과 무흘이 가족에겐 내가 알릴게
☆계속☆